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사데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Church of Sardis; As If Alive But You Are Dead)

■ 요한계시록 3:1-6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데 교회는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 가는 교회였습니다(계3:1). 늘 청전을 먼저 하였던 주님이셨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만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데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데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사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데는 두이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데에는 파크톨루스(Pactolus)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서 사금을 많이 캐내어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소아시아에 공급했던, 부의 상징이 되어온 도시였습니다. 사치한 무역도시의 분위기가 가운데 그 사데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도 급속하게 세속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데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세상의 재물과 권력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2. 사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계3:1).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별은 (계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3. 사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입니다.

항상 청전을 먼저 하였던 주님이 이번에는 청전이 없이 그 초두에 사데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3:1)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모습들은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 사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게 된 것” 즉 아직 다 죽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가 본문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데 교회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계3:3). 이어지는 주님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첫째, “생각하고”, 둘째,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첫 사랑과 첫 헌신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 부족한 죄를 향해서, 사데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첫 신앙, 첫 사랑, 첫 감격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5. 사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언하리라”(계3:5) 여기에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이루 셀 수 없는 무수한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견고히 새겨져 있다는 의미이며, 이제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보좌에 둘러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맺는 말

오늘도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흰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황금 길을 걸으며, 영원복락을 누리시는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 10시 5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602 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8시	606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1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 목사 임규현 김만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이진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목사 김영한 김제진 김은수 김철홍

선 고 사 강아람·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예스더,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래(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말라게시아), 이재을·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필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강·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대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 Welcome!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Our '2012 Discipleship Program' will continue today at 12:45.
-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유문건 목사	유문건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복규 장로
III	오후 2시	오세광 목사	이관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르 Call to Worship	시 28:7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3부: 십계명...	다 함 께
	2부: 50(사116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01(460)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계 3:7-13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라" (Church of Philadelphia: Be a Pillar of the Church!)	박노철 목사
* 찬 송 Hymn ...	515(256)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우상식 선교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9:14	인 도 자
찬 송 521(253)	다 함 께
기 도	엄성웅 집사
찬 송 502(259)	다 함 께
성 경 사 49:5-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설 교 자
* 찬 송 505(26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 부: 김수원 권사, II 부: 김성영 권사
성 경	마 4:12-17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회개와 천국"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연
설 교 박노철, 오세광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특 강 황성주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존귀하신 구주	W. A. Mozart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 부	할렐루야	주 앞에 설 때	Robert J. Hughes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 부	임마누엘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E. K. Heyser	류충기	김윤지2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배들레헴	창 평화	Otis Gruber	유대왕	김정희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Coronation Tune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 부	은 빛	선한 싸움위해		박래경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주 여호와께 가자	C. Gounod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현금송)

I 부	유 년 부	아홉의 축복	김인식	박재원		권보화	
II 부	그레이트랜드	갈보리 산 위에	Arnold B. Sherman	송재월			
III 부	아멘관현악단	작은 불꽃 하나가	Kurt Kaiser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정수근	15-7	한나	우미란	김경목	12교구	빌립	희락팀	이상현	13교구	고등부	화평팀/경기자
김홍숙	13-19	에스더	희락팀/강혜중	이찬서	14-15	청년1부	인내팀	최상혁	14-8	고등부	전재민/객태수
송국빈	16-13	엘리아	본인	이기현	12교구	도르가	희락팀	아하영	13교구	중등부	화평팀/경기자
오수연	14-11	마리아	본인	경금철	6교구	청년2부	본인	한원준	5-9	중등부	본인
민혜경	15-7	마리아	본인	이혜련	14-11	청년2부	본인	육민호	3-3	중등부	화평팀/정원준
나인숙	13-29	마리아	자비팀	홍지아	6교구	대학부	양진혁	한승준	교	초등부	본인
송미경	16-12	보배	곽오숙	김민주	1-9	대학부	자비팀/김혜영	김서우	육	유아부	희락팀
안미옥	9교구	보배	본인	이지영	16-12	고등부	곽오숙	오성아	1	영아부	본인
김나경	16-3	도르가	박광일	김유강	6교구	고등부	본인	박승하	국	영아부	본인

☞앞면에서 계속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이지동(정형외과) 민효영(내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3688-9123

■ 결 혼

1. 박호영 군(14교구 박현주 성도 김숙자 성도 장남)과 신부 박윤경 양(박혜곤 집사 송혜숙 권사 장녀-타교회) / 3월10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 장례

1.故 박갑남 권사(1교구 서경애 권사 모친, 강승웅 집사 장인, 서준섭 집사 모친, 유지현 집사 시모) / 2월27일(월) 별세, 3월1일(목) 발인
2.故 조정기 장로(1교구 조은정 성도 부친) / 2월29일(수) 별세, 3월2일(금) 발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값싼 물건처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죽은 자가 어찌 스스로 살 수 있겠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인처럼 죽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고행이나 수양 또는 적선 같은 인위적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으리만큼 귀중한 것이 생명이다. 구원은 곧 생명이다. 그런고로 구원과 바꿀 만큼 귀한 것은 없다. 우리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애처처럼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주여 주신 구원을 과소평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